

칼라팀 5월 보고서
윤도희, 선영석, 김나래, 민광필

걸었던 자리마다,

별이 빛나다





Contents

- 단원소개
- 5월의 일정
- 주요 활동
- 5월을 정리하며
- 앞으로의 일정

단원소개:D



니모

(맨날 집나가는 니모를
찾아서)



게샷귀

(게이계의 샷별 귀염둥이)



비-상

(75세 빵만드는 할머니)



에데리

(먹고, 먹고 또 먹는다)



5월의 일정

2013년 5월 첫째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YMCA 도서관 청소(짐 옮기기) -아티스쿨 아이들 모집	2 -YMCA 도서관 청소 (물청소) -아티스쿨 아이들 모집	3 -타밀어 수업 -YMCA 도서관 페인트 작업 -커미티 미팅	4

2013년 5월 둘째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아피스쿨 수업 준비 (영어 시험지)	6 -아피스쿨 수업준비 (교실 정리, 프린팅) -아피스쿨 (영어)	7 -타밀어 수업 -스리랑카 요리교실 -아피스쿨 (체육-태권도)	8 -개교식 준비 -아피스쿨 수업준비 -아피스쿨 (영어)	9 -타밀어 수업 -아피스쿨 (체육-태권도)	10 -스리랑카 요리교실 -유스 미팅 -아피스쿨 (음악) -간이 커미티 미팅	11 -아피스쿨 개교식 -보드멤버 저녁초대

2013년 5월 셋째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2	13 -태풍으로 인한 외출 금지!	14 -타밀어 수업 -코디네이터 미팅 -아피스쿨 (체육-태권도)	15 -도서관 정리 (언어별 분류) -아피스쿨 (영어)	16 -타밀어 수업 -도서관 정리 (책 먼지 제거) -아피스쿨 (체육-태권도)	17 -아피스쿨 (음악) -전국연맹, 칼라Y 전체 미팅	18 -집안 대청소

2013년 5월 넷째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9	20 -새로운 코디네이터 인드라 미팅 -아피스쿨 (영어)	21 -타밀어 수업 -스리랑카요리교실 -도서관 정리 (책 먼지 제거) -아피스쿨 (체육-태권도)	22 -스리랑카 전국YMCA 유스 미팅 (트링코말리)	23 -스리랑카 전국YMCA 유스 미팅 -칼라Y사무총장 결혼식	24 -스리랑카 전국YMCA 유스 미팅 (트링코말리)	25 -스리랑카 전국YMCA 유스 미팅 (트링코말리)

2013년 5월 다섯째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6 -아피스쿨 영어수업 계획표 작성	27 -아피스쿨 준비 -아피스쿨 (영어)	28 -타밀어 수업 -코디네이터 미팅 -아피스쿨 (체육-태권도)	29 -코디네이터 미팅 -칼라 친환경 재활용 센터 방문 -아피스쿨 (영어)	30 -타밀어 수업 -코디네이터 미팅 -아피스쿨 (체육-태권도)	31 -중간평가 준비 -아피스쿨 (음악) -커미티 미팅	



주요활동

- 아띠 스쿨
- 도서관 만들기
- NCY-SL 유스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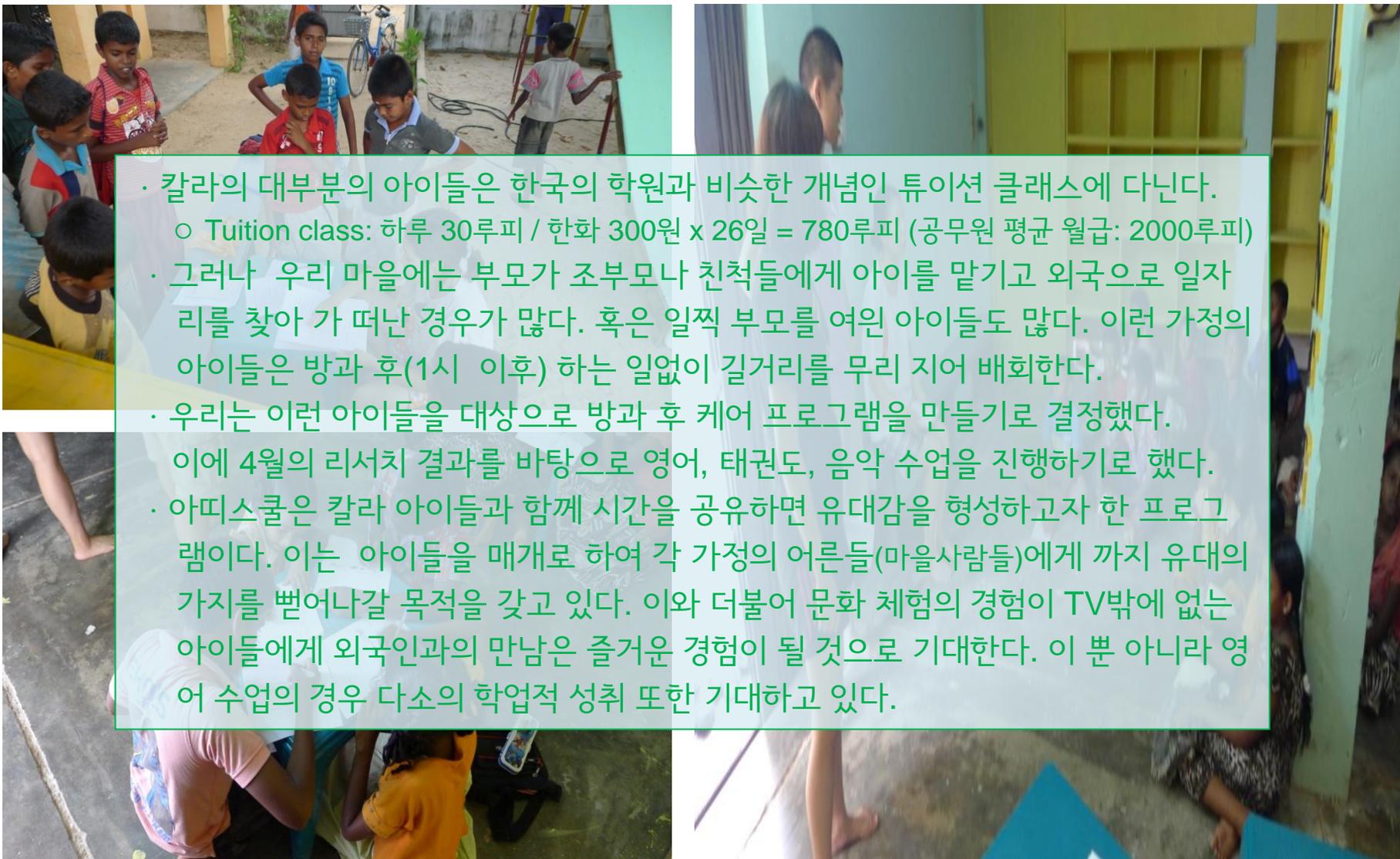


아띠 스쿨
(Atti – School)

아티스쿨 의도 및 목적



아미스쿨 의도 및 목적



- 칼라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국의 학원과 비슷한 개념인 튜이션 클래스에 다닌다.
 - Tuition class: 하루 30루피 / 한화 300원 x 26일 = 780루피 (공무원 평균 월급: 2000루피)
- 그러나 우리 마을에는 부모가 조부모나 친척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가 떠난 경우가 많다. 혹은 일찍 부모를 여윈 아이들도 많다.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방과 후(1시 이후) 하는 일없이 길거리를 무리 지어 배회한다.
-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케어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에 4월의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태권도, 음악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 아미스쿨은 칼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면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아이들을 매개로 하여 각 가정의 어른들(마을사람들)에게 까지 유대의 가치를 뻗어나갈 목적을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 체험의 경험이 TV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외국인과의 만남은 즐거운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뿐 아니라 영어 수업의 경우 다소의 학업적 성취 또한 기대하고 있다.

아띠스쿨 개교식



- 일시 : 2013. 5. 4 (토) / 오전 10:00
- 장소: 칼라YMCA 강당
- 우리는 아띠 스쿨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식적으로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앞으로의 활동과 4월의 리서칭 결과를 알리기로 했다.

아피스쿨 - 영어

-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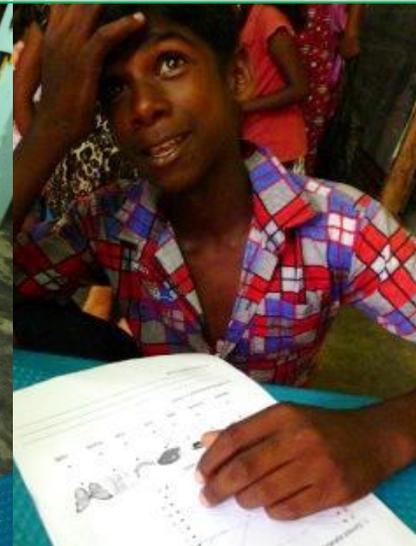
리서칭 결과 아피 스쿨에서 영어 수업을 바라는 요구가 가장 높았다. 스리랑카는 영어와 싱할라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밀어가 모국어인 타밀 지역 사람들에게 영어와 싱할라어는 따로 돈과 노력을 들여 일부러 배워야 할 언어이다. 이 때문에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상급생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단원들은 고급 영어 실력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 수업 소개

1) 수업 첫 날,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찾아왔고 나이에 상관없이 영어 실력 또한 모두 달랐다.

2) 이에 나이,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4개의 반으로 나누어 수업하기로 결정하였다.

- ① 기초 알파벳 과정(윤도희 단원) : 알파벳 노래 등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기본적인 알파벳(대문자, 소문자) 학습
- ② 기초 단어 과정(민광필 단원) : 알파벳 순서에 따라 기본적인 영어단어 학습
- ③ 기본 영어 과정(김나래 단원) : 기초 영어단어를 기본으로 간단한 문장, 회화 학습
- ④ 기본 회화 과정(선영석 단원) :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위한 문법, 단어, 읽기 학습



아피스쿨- 영어

- 시행착오

- 1) 달는 나눔을 할 때마다 그날의 수업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했다. 서로 조언을 들으면서 단원마다 생각하는 수업의 방향이 다름을 이해했다. (데이 케어의 목적과 학업적 성취 목적 사이에서 단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의견이 조금씩 다름)
- 2) 두 세번 수업을 진행하고 보니 아이들이 자신과 맞지 않는 반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달는 나눔에서 단원들은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유동적으로 반을 옮길 수 있도록 합의 했다.
- 3) 새로운 코디네이터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수업에 대해서 궁금해할 경우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수업 계획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체계 없이 수업을 진행했던 것을 반성하며 수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다.

- 기대

- 1) 아이들이 처음에는 외국인인 우리들 때문에 영어 수업에 참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어에 조금이나마 흥미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 2) 우리의 주된 목적은 학업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가정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칼라의 실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알아갈 수 있다.(부모님 이야기, 전쟁, 쓰나미 이야기)
- 3) 영어 수업을 통해 학구열이 높은 가정의 어른들이 YMCA는 물론 라온아피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



아피스쿨 - 체육

-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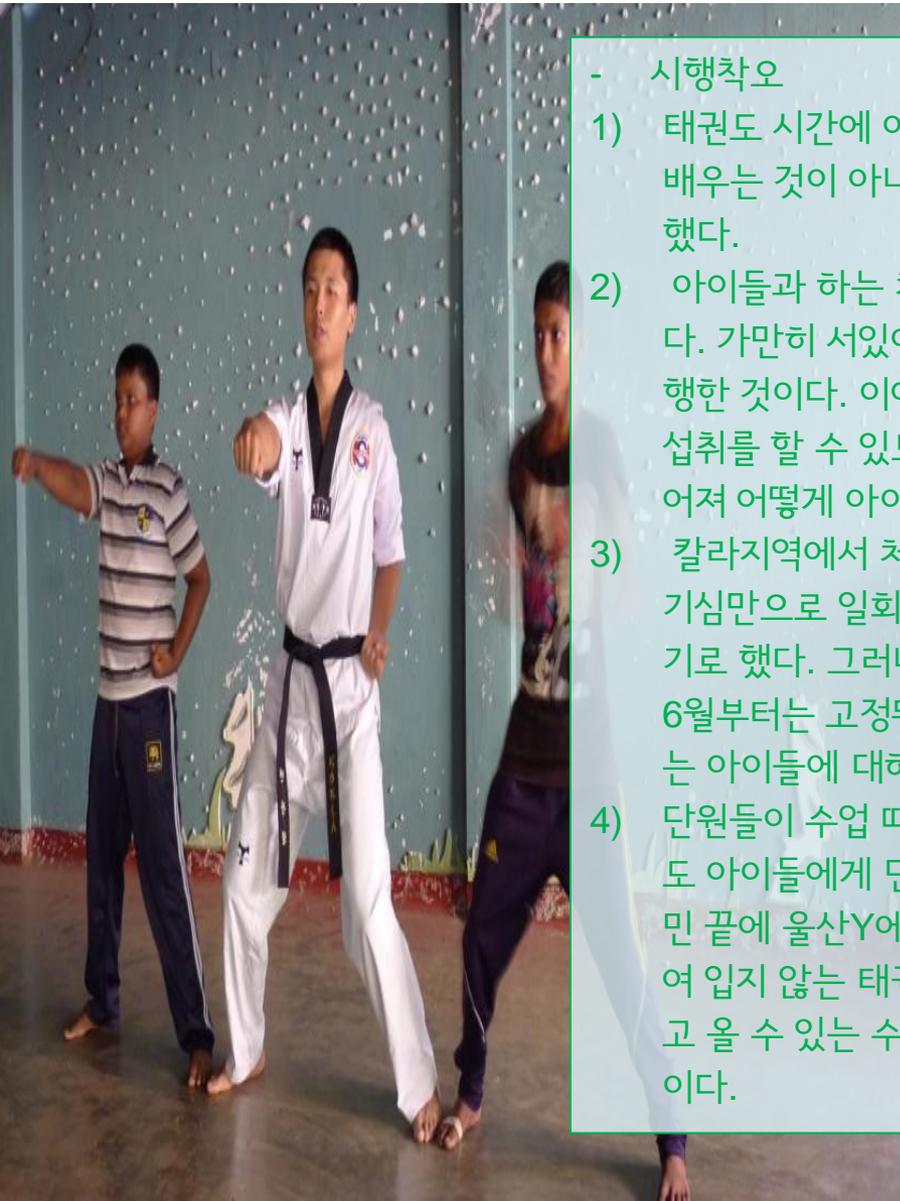
우리가 길을 지나다 남자 아이들을 만나면 그들이 언제나 묻는 말이 있다. 쿵푸 할 줄 아니? 가라데 할 줄 아냐는 것이 그것이다. 리서칭에서 두 번째로 인기 많은 수업도 역시 체육 수업이었다. 그러나 태권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단원이 없었기 때문에 태권도 수업을 만드는 것이 망설여졌다. (선영석, 민광필 단원은 태권도를 하지 않은지 매우 오래됨) 그러나 울산 Y에서 미흡하나마 태권무를 배웠고, 태권도를 오랜 시간 동안 하지 않았지만 단증을 갖고 있는 단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수업 소개

- 1) 수업 첫 날,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왔다. 첫 수업에 80명 가량의 아이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공간적, 단원의 역량적 어려움을 겪었다.
- 2)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수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나이를 기준으로 3시 30분 반, 4시 20분 반으로 태권도 수업을 2개의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3) 수업 초기의 목표는 태극 1장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기 어려워 하고 태권도에 대해 제대로 아는 단원이 없기 때문에(두 명의 여자 단원은 태권도의 태자도 모름) 수업의 목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단원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아이들도 배우고 싶어하는 '강남 스타일' 태권무를 가르치기로 수업의 목표를 바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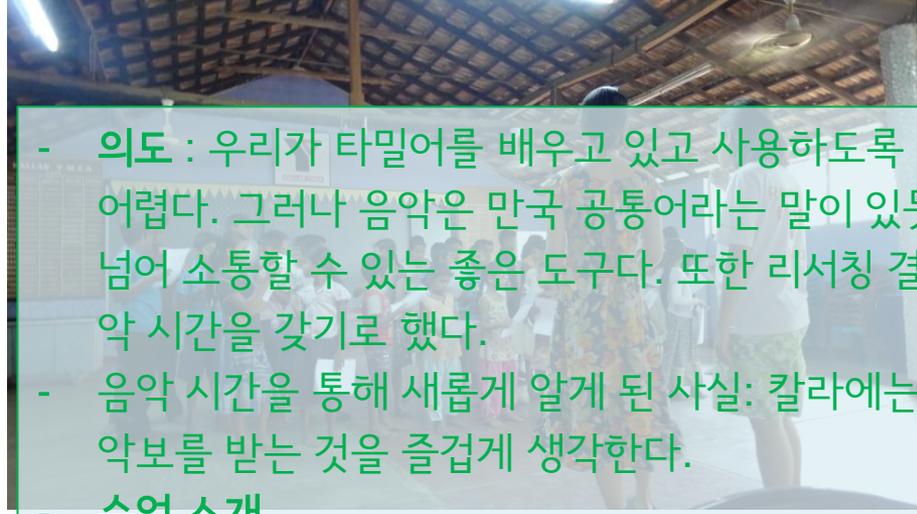
아피스쿨 - 체육



- 시행착오

- 1) 태권도 시간에 아이들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태권도는 남을 공격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수양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필요했다.
- 2) 아이들과 하는 체육 수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미처 아이들 입장을 생각 하지 못했다. 가만히 서있어도 땀이 나는 더운 날씨에 쉬는 시간 없이 태권도를 한 시간이나 진행한 것이다. 이에 20분 수업 후 5분의 쉬는 시간을 두어 아이들이 수업 중간에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그러나 쉬는 시간 후 아이들의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 어떻게 아이들을 집중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 3) 칼라지역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무술수업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지만 호기심만으로 일회성에 그친 학생도 많다. 5월은 출석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태권무'를 배우게 되면 진도를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6월부터는 고정된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간에 새로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팀원간의 합의가 계속되고 있다.
- 4) 단원들이 수업 때 입는 태권도복을 입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또한 칼라Y에서도 아이들에게 단체복을 입히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안에 대한 고민 끝에 울산Y에 도움을 청했다. 울산Y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태권도장에 연락하여 입지 않는 태권도복을 모아 주었다. 그러나 사이즈가 서로 다르며 한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수량도 한정적이어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도복을 나눠 줘야 할 지 고민이다.

아띠스쿨 - 음악



- 의도 : 우리가 타밀어를 배우고 있고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과 의사 소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음악은 만국 공통어라는 말이 있듯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감정을 공유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 또한 리서칭 결과에서 음악에 대한 요구도 있었기에 매주 금요일은 음악 시간을 갖기로 했다.

- 음악 시간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칼라에는 음악 수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음표를 보고 악보를 받는 것을 즐겁게 생각한다.

- 수업 소개

1) 라온아띠 단원들을 포함하여 합창단을 만들고자 하였다.

2) 어떤 노래를 고를까? '도레미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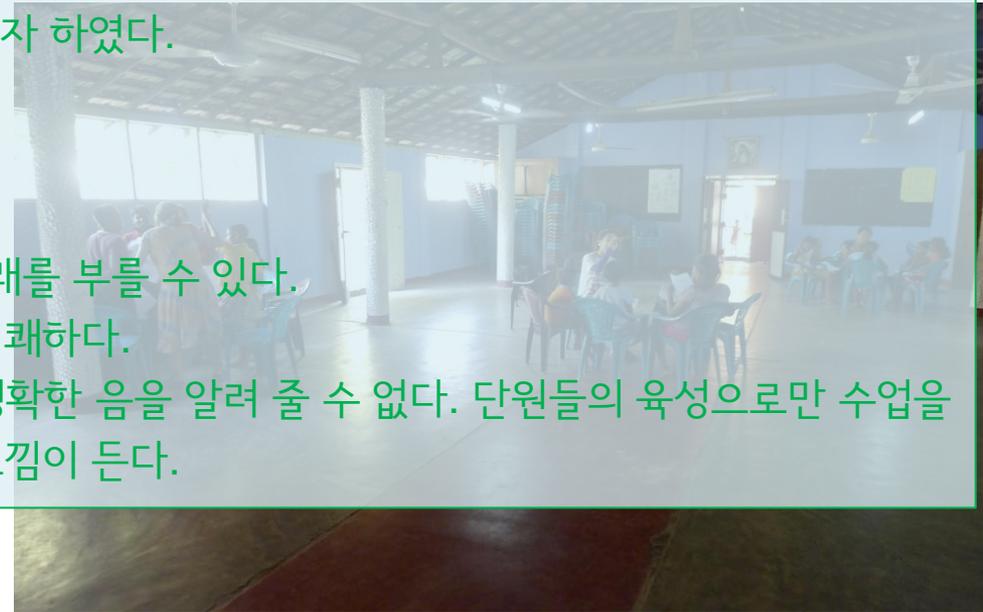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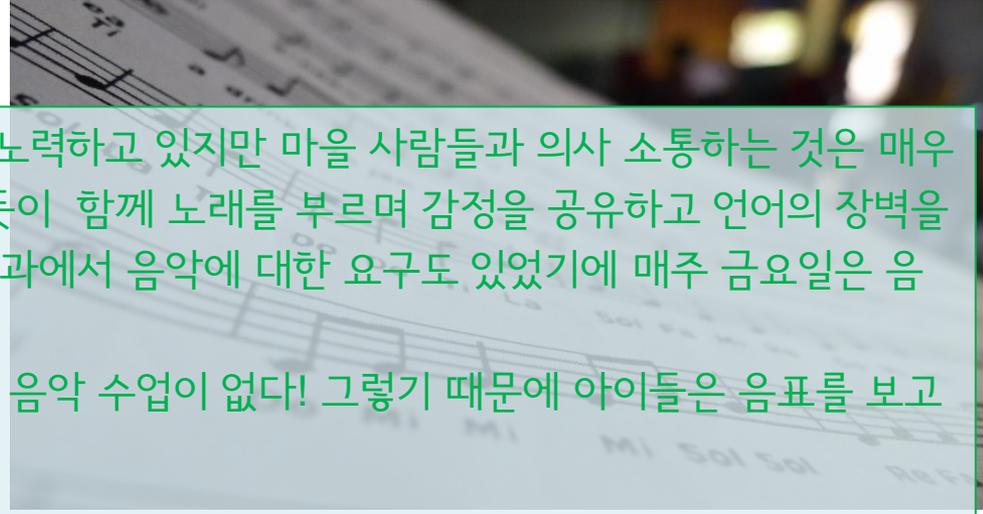
· 왜 '도레미송'인가?

① 쉽다.

② 기본적인 음계로 구성되어 어렵지 않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③ 음표를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고 음악이 경쾌하다.

- 시행 착오 : 어떠한 음악적 도구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음을 알려 줄 수 없다. 단원들의 육성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간마다 음계가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5월의 아띠 스쿨-약속

아띠 스쿨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아띠 스쿨은 우리에게 왠지 꼭 해야만 하는 활동, 쉽게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도구 정도였다. 그러나 아띠 스쿨은 도구도 일적인 활동도 아니었다. 우리는 칼라의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이라는 가지를 통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칼라(마을)를 만났다.

칼라는 쓰나미와 전쟁으로 해외의 많은 구호 단체가 들어왔고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왔다 떠났다. 그들도 우리처럼 마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활동은 지속성 없이 활동가들이 떠나면서 끝이 났다. 아이들 입장에서선 외국인들이 와서 친한 척 하더니 금새 떠났구나 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다.

아띠 스쿨 아이들은 종종 우리에게 언제 떠날 것인지, 우리가 떠나면 아띠 스쿨도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 묻곤 한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8월과 9월은 방학식이며 우리는 가겠지만 10월에는 더 좋은 사람들과 더 좋은 아띠 스쿨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우리의 만남과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오래도록 아띠 스쿨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사람’을 모으고 지역문화공간을 창출해 낸다
도서관 만들기

왜 도서관인가?

- YMCA는 본관 건물과 3층짜리 부속건물로 이루어져있다. 3층 건물에는 도서관, 컴퓨터실, 헬스장 같은 다양한 공간으로 이루어져있다.
- 그러나 모든 공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 헬스장은 몇몇 유스멤버와 최근 새롭게 소수인원이 등록하였지만, 컴퓨터실은 문을 닫았고 도서관은 포크스쿨의 창고로 전락해 있었다.
- 우린 5월 일정을 만들며 4월말에 새롭게 이 사실을 발견 하였다. 칼라YMCA는 인프라(도서관 건물과 책)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의 부족으로 재작년부터 도서관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다.



- 1) 우리가 기대하는 완성된 도서관의 모습은 **사람을 모으는 공간**. 이는, 현재 인적 기반이 전혀 없는 Kallar YMCA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 이러한 도서관 사업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 칼라YMCA를 지역 운동의 거점으로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다.
- 2) 그리고 도서관은 문화, 놀이 공간이 별로 없는 **칼라지역의 아이들에게 문화, 놀이공간의 창출**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도서관 만들기 - 청소와 정리



도서관 만들기 - 청소와 정리

1) 자원봉사자 모집 - 함께 일하기

- 단원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일한다면 그들에게도 도서관을 만든다는 느낌과 흥미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 도서관 청소와 정리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대자보를 만들어 동네에 붙여, 시간이 있다면 누구든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 그러나 우리 목적과 달리 많은 봉사자를 모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놀러 온 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도서관 청소와 정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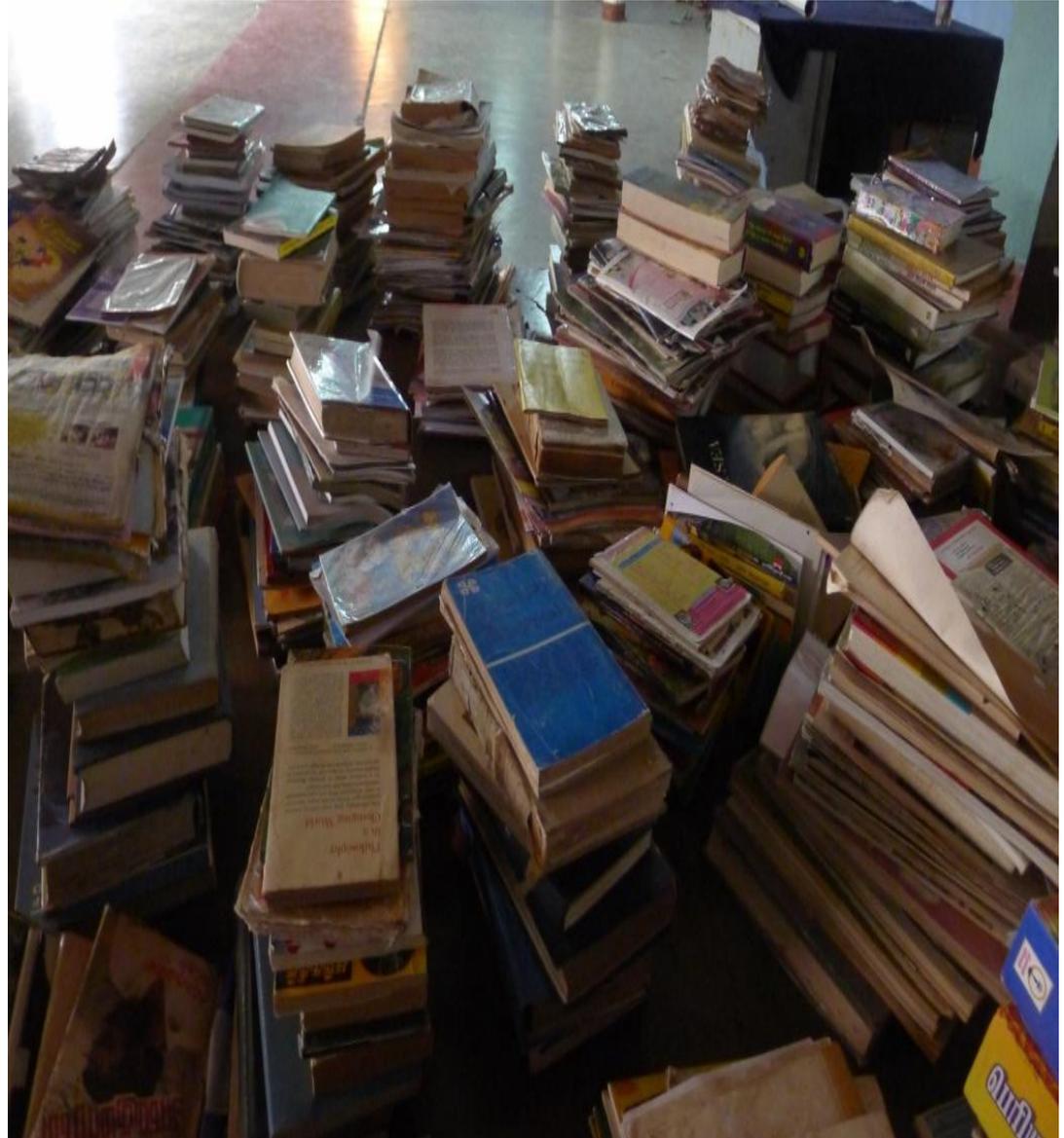
2) 도서관 청소 및 페인팅

- 아이들과 일부 유스 멤버의 도움으로 비교적 쉽게 도서관 안에 방치되어있던 물품들을 옮길 수 있었다.
- 도서관이 사람의 손길이 없이 오래 방치되어 책과 장소 모두, 깨끗하지 못했다. 그래서 단원들은 모든 책을 꺼내 다른 곳에 옮겨놓고 도서관 청소를 시작했다. 천장, 벽, 선반, 바닥 모두 청소를 한 뒤 일부 벽에 대해 페인트 작업을 마쳤다.

3) 현재 상황

- 정리 된 도서관은 현재 아미스쿨 영어교실로 쓰이고 있다.
NCY-SL(스리랑카 전국연맹)에서 활동에 대한 예산을 받는 대로 남은 벽의 페인팅과 책 덮개 싸는 일, 그리고 어두운 도서관 벽에 전구를 다는 일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서관 만들기 - 책 청소



도서관 만들기 - 책 청소



오랜 기간 방치되어 손상된 책들.

- 2011년 이후 YMCA 도서관은 문을 닫은 상태다. 그 이후 많은 책이 분실되거나 도난 당했지만 여전히 많은 책들이 남았지만 좀 먹은 책이거나 먼지와 습기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상태이다.

책 청소를 시작했다.

- 우선, 책들을 언어에 따라 타밀어, 싱할라어, 영어 등으로 나눈 뒤 헝겊을 이용해 책에 붙은 먼지를 닦아내는 작업을 마쳤다.
- 이후에는 책 덮개를 싸서 분류작업을 통해 도서관에 배치할 계획이다.

우리가 고민하는 도서관 작업

- 쓰지 않고 있는 도서관건물과 책을 정리한다
- 방과 후 시간 도서관 공간을 열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람을 찾는다.**
 - 단지 도서관 책을 정리를 하고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관리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 가능하다면, 도서관을 운영할 자원봉사자를 찾는 것이 첫번째 목표이다.
 - 하지만 칼라YMCA에는 활동을 지원할 적절한 활동가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 따라서, 단원들은 도서관을 운영할 사람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 중이며,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 다음 기수들이 **고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놓는다.



NCY-SL 유스 워크숍

문화 교류 프로그램

NCY-SL 유스 워크숍

문화 교류 프로그램



- 첫째 날(22일) : 도착, 오리엔테이션(일정 및 규칙 안내)
- 둘째 날(23일) : 프로그램 소개, 그룹 활동, 문화 교류
- 셋째 날(24일) : 그룹 활동, 리더십 프로그램, 공연
- 넷째 날(25일) : 해산 및 칼라 도착



- NCY-SL 유스 워크숍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계를 맺고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자리였다.
- 단원들 역시 칼라YMCA 소속으로서 다양한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소통의 도구로서 문화, 예술을 통한 통합과 연대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 이러한 가치는 오랜 기간의 내전이 끝난 이후, 스리랑카 청년들이 사회적인 통합과 관련하여 주요한 역할을 해낼 역량을 키우도록 한 자리이기도 하였다.

NCY-SL 유스 워크숍

문화 교류 프로그램



- 3박 4일의 워크숍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또한 청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 짧은 기간이었지만, 타밀과 싱할리 지역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내전 이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 민족, 언어의 구분을 뛰어넘는 예술활동을 함께하며 재통합의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었다.



5월의 토의주제

Kallar YMCA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칼라지역의 첫 기수로서 마을을 배우고, 관계 맺기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하였다. 또한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의 리서칭을 통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아미스쿨과 도서관 정리작업을 시작하였다.

활동의 3개월 차에 접어든 지금, 단원들은 스스로의 역량과 함께 칼라YMCA의 역량에 대해 고민하며 활동에 임하고 있다. 칼라YMCA는 지역사회 거점으로서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산을 의미 있게 운영해 나갈 인적 자원과 조직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원들은 칼라YMCA와 무엇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이다.

5월의 생활은 삼중고!!!
모기+단수+정전

모기

스리랑카에 도착한 직후부터, 더위와 함께 모기와 전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비록 스리랑카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이 아니지만, 단원들의 팔과 다리가 모기에 물려 밤송이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5분 거리의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며 가려움을 달래기도 하구요. 출국 전 사무국에서 지급한 모기 약을 바르며 조금이나마 가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소가 안돼요! 모기에 물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단원들의 개인 위생!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모기로부터 오는 어떠한 질병도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기에 이틀에 한번씩 나오는 물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소중하게 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샤워와 빨래는 급한 대로 YMCA건물에서 하고 있으나, 화장실은 개인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단수가 된 집에서는 긴급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빈 통에 물을 받아놓고 비상시에 쓰고 있지만, 변기에 사용되는 물이 상당해서 쉽게 볼 일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답니다. 이로 인해 물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절절히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칼라팀입니다.

단수

그리고 정전

칼라지역에는 잦은 전기공사와 이유를 모르는 단전사태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최소 하루에 한번,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하루 종일 전기 없는 생활 속에서 더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촛불을 키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낭만 보다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상하지 않을까. 창문을 열수 없는 밤 시간에 어떻게 더위를 피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 아미스쿨(After School)(진행중)
 - 과목: 월/수(영어), 화/목(체육), 금(음악)
 - 시간: 매일 4.00시부터 5.00시 까지

- Lecture for Mother(진행중)
 - 강의 주제 : 여성인권신장
 - 시간 : 마지막 주 금요일, 4.00시부터 5.00시 까지

- 도서관 만들기(진행중)
 - 책 보수, 도서관 공간 정리
 - 도서관을 지역거점이자, 아이들의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

- 350PPM Campaign(6월 첫째주)
 - 6월 첫째주, 인간쓰레기통과 환경퀴즈대회
 - 350ppm 캠페인을 통한 지역 주민들과 만남 및 350ppm에 대한 인식 나눔

- 문화탐방
 - 6월 10~14일 : 산간지역 문화탐방 (캔디, 누와라엘리야, 시기리야 등)
 - 고대 유적지 등 명소를 탐방하며 스리랑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 YMCA 포크하이스쿨 한국문화방 꾸미기
 - 한국 문화와 음식, 언어, 생활양식의 소개
 - 포크하이스쿨 학생들에게 아시아의 다른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5월을 정리하며

- 3개월을 접어들며 코디네이터가 부재한 상황과 그리하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 NCY-SL과 현지 YMCA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상황 등,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심란함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했다.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전에 여러 벽에 부딪혀야 했기 때문에 좌절감은 더 크게 다가왔다.
- 5월 중순에는 계속되던 코디네이터의 문제로 코디네이터가 바뀌었다. 새로운 코디네이터가 오고 우리들은 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활동을 하려 해도 예산문제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 여러 상황들을 겪으며 대학생 비전문가 봉사자로서의 역량이 여실히 들어났고,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의미에서 라온아피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프로그램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던 한달이었다.
- 아피 스쿨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에게 조그마하지만 큰 전환점이 되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전의 열정을 되찾았고, 새로 온 코디네이터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서 이전과 달리 활동적인 측면에서 큰 서포터가 되고 있다. 다만, 너무 오랜 시간 코디네이터의 부재에 익숙해 있던 터라 새로운 코디네이터와의 생활면에서 작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 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쉽지 않았던 한달이었다. 그러나 뒤돌아 생각해보니 '걸었던 자리마다 별이 빛나는 것' 같다. 때론 사람에 지치고, 치여도 이곳에서의 생활은 소중한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는 시간들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D